

書評有感

좋은 지면에 실리는 좋은 책에 대한 서평을 읽는 일은 즐겁다. 그때의 서평은 편집자와 저자를 한껏 의식하고 쓰여지므로 좋은 비평에 가깝기 때문일 터이다. 「출판저널」에 실리는 서평들은 대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원고지 여덟매 분량의 짧은 글 속에 책 한 권이 일궈낸 훌륭한 성과를 밀도있게 정리하려고 애쓴 흔적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팔볼출이라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새움이나 절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리라.

특히 독자들은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송구스러운, 편집자들만이 은밀하게 누리는 즐거움도 있다. “쓰다보니 40매가 넘었는데 서론 부분만 실어야 되는 게 아쉽다”며 그 증거로 그 분량 전체를

송고했던 한 철학과 교수의 글을 통째로 읽을 수 있었던 즐거움, 비판의 글을 쓰고 싶어서 논조의水位를 문의해올 때 함축적인 문장으로는 생생하게 이해하기 힘든 비판점들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 등등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던가, 우리의 서평문화의 천박함을 통해 삶의 구차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청탁된 책이 서평자가 보기에 간혹 ‘함량미달’일 때 특히 그렇다. 아직 교수직을 얻지 못한 젊은 필자들은 ‘서평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학자적인 양심과 ‘밥줄’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글을 못 쓰겠다는 통고를 해온다. 노획한 젊은 필자라면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낸다. 현직교수라면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왕에 원고청탁을 수락했으니 글은 쓰되, 말미에 “사족이지만” 혹은 “바람이 있다면”으로 시작하는 때 우 무뎠 비판을 부기한다.

더욱 서글픈 일은 “사족이지만”과 “바람이 있다면”에 대한 항의전화이다.

저자임을 밝히는 이들은 “섭섭하다”를 연발하다가, 반론의 지면을 마련하겠다고 제의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며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들은 어느 서평의 어느 부분이 서운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서평을 단지 광고로만 생각하는 출판사 관계자일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하지만 서운하기는 매일반이다.

역작일수록 엄정한 비판을, 범작일수록 비판없는 찬사를 기대하는 것 같다.

— 김중식 기자

출판저널

통권 125호 / 1993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沐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奉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林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雅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景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靛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範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鍾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碩然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현대의 가장 중요한 기호학자이자, 10여개 국어를 통달한 ‘언어의 천재’인 이탈리아의 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지난 80년, 현대사회의 세기 말적 위기를 추리소설 형식에 담아 발표한 소설 「장미의 이름」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본격 추리소설이란 점에서 특이한 책. 이미 영화로도 제작돼 관심의 반경을 확장시킨 바 있는데, 저자는 이 소설의 집필과정의 記述 등을 묶어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이윤기, 열린책들)란 자술서를 펴내 흥미를 더한다. 특히 이 책 가운데는 자신이 왜 중세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았는가를 상세히 밝힌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내가 이 소설을 쓴 것은 나에게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나는 한 수도사를 독살한다는 막연한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고 1978년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 소설쓰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머지는 써여지는 과정에서 붙은 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수도사를 독살한다는 아이디어는, 1975년의 메모에서 이미 불특정 수도원의 수도사 명단을 작성했던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

아, 그보다 훨씬 전에 내 머리 속에 맴돌았음에 분명하다. 그것뿐이다. 이 소설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선 20년 전 우연히 위스망(「저쪽」의 저자)에 대한 애정때문에 세느강변의 고서점에서 산 오르필라의 「독물논고」를 읽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독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는 생물학자인 내 친구에게, 특정한 속성(가령 손을 대면 피부로 흡수된다든가 하는)을 지닌 약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친구의 편지는 받는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그의 편지는 표면적으로는 내 거냥에 합당한 독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답신이었으나 읽기에 따라서는 나와 함께 교수대로 가는 것을 거절하는 답신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당시의 수도원에 상주하는 수도사를 생각하고 있었다(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은, 좌익신문 「일 마니페스토」를 읽을 만한 탐정수도사였다. 이탈리아에는 좌익에도 좌익이 있다). 그러나 수도원이 되었든 수녀원이 되었든 그 분위기는 생각만 해도 바로 무수한 중세적인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문서철을 뒤적여 보았다. 나는 冬眠中인 중세학자가 아니던가(나는 1956년에 중세의 미학에 관한 책을, 1969년에는 같은 주제로

수백페이지짜리 책을 출판했고, 1962년에는 몇편의 에세이를 산발적으로 발표하다가 제임스 조이스 연구와 때를 같이해서 중세전통연구로 되돌아섰으며, 1972년에는 「요한의 묵시록」과, 리에바나 사람 베아토에 의한 주석서 해명의 방대한 연구에 몰두했으리만치 중세문제라면 준비운동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셈이다). 나는 1952년부터 모아온 -원래의 목적은 다소 막연한 것, 말하자면 중세 怪獸史, 중세 分析百科, 혹은 書名目錄論 같은 것을 쓰는 데 있었다-엄청나게 방대한 자료(파일카드, 복사물, 노트 등)를 뒤적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중세가 내 나날의 꿈인 바에야,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나는 중세에 관한 것만 아는 사람일 뿐, 현대에 관한 것이라고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시골에서 우리부부는 화투불을 피우고 나란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아내는 장작더미의 불길에 전깃줄을 태우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나를 비난한 적이 있다. 내 아내는 내 소설의, 장서관 화재에 관한 章을 읽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도 불꽃을 보고 있었

다고요?”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나는 중세의 수도사들 눈에 저 불꽃이 어떻게 보였으리라는 건 알아.”

10년전, 리에바나 사람 베아토의 주석서에 관한 나의 주석을 실으면서, 출판사에 보내는 필자의 편지(프랑코 마리아 리치 앞으로 보내는)에 나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중략)

오동수도원(아직도 그리보 수도원장이 악마편람을 쓰고 있는 곳)의 궁궐플 천장 아래에서, 유향냄새가 풍기는 그 편람을 뒤적거리면서 허비한 수많은 휴일들, 므와사끄와 콩케 수도원에서의 황홀, 「요한의 묵시록」의 원로들과 죄많은 영혼을 불가마에 밀어넣은 악마에 대한 놀라움, 박식한 수도사 베대를 연구하던 즐거움, 오감(소쉬르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서 기호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들렀던)에서 누리던 이성적인 위안…….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어찌 이뿐이라? ‘성브란누스의 외국여행’에 대한 끊임 없는 향수, 켈즈 寫本을 통하여 수행된 우리사고의 증명, 켈트의 케닝 가르를 방문한 보르헤스, 권력과 수제주교의 일기에 설득당하고 말았던 대중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나는 잊을 수 없다.